

선수용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 가이드스

장애인선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 상담 / 교육
상담전화 1599-6119 FAX 070-7469-6119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장애인스포츠인들과
함께하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권!**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선/수/인/권/보/호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ENTS

I 선수 폭력의 예방과 대처 / 05

1. 선수 폭력이란? / 05
2. 상황별 선수 폭력 예방법 / 06
3. 선수 폭력 대처방법 / 08

II 선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09

1. 선수 성폭력이란? / 09
2. 상황별 선수 성폭력 예방법 / 10
3. 선수 성폭력 대처방법 / 12

III 참고 자료 / 13

1. 선수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 13
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포츠인권보호센터 소개 / 15
3. 관련 법규 / 16



I 선수 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선수 폭력이란?

선수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하여 선수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선수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도 선수폭력에 해당된다.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폭력과 선수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크게 구분된다.



2 상황별 선수 폭력 예방법

● 경기장 및 훈련장

-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선수(선후배 및 동급생)에 대한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 격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 운동부 기강(속칭, 군기)을 잡기위해서 다른 선수에게 가혹행위(얼차려 또는 구타)를 해서는 안 된다.
- 훈련 및 시합에서 동료선수의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동료선수에게 협박 위협 또는 공포를 줄 수 있는 표정, 언어, 몸짓을 해서는 안 된다.
- 동료 선수에게 자신의 가방이나 운동도구를 들게 하거나 훈련과 관련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된다.
 - ▶ 동료선수의 자유 시간, 귀가시간을 강제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연습이나 경기가 끝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시간을 늦추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연습 및 경기의 시작 전 준비와 끝난 후 정리는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가 3~4명씩 그룹을 만들어 하도록 한다.
- 동료, 선후배, 지도자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해받고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한다.
- 선수폭력의 발생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모른척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
- 장애와 관련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본인의 장애 특성에 대해 지도자와 동료, 선후배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 생활보조인, 경기 및 훈련 보조 장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 경기와 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용·기구 등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한다.



● 합숙 등 일상생활

- 선수는 지도자와 협의하여 만든 생활규칙을 지켜야 한다.
- 선배 선수는 열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목적으로 선수들을 집합시켜서는 안 된다.
- 다른 선수를 표정, 몸짓, 언어로 협박하거나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특성에 대해 비하하는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잠시 그 자리를 떠나 격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 다른 선수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이나 놀림을 주려고 청소, 세탁, 설거지, 과제 등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돈을 주지 않거나 제값을 주지 않고 동료나 후배들에게 물건을 구입해 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 감기약 등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신경이 예민해져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료나 후배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 합숙소 등 공동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선수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합숙소 출입 시 반드시 감독자에게 신고한다.
- 동료, 선후배, 지도자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향받고 있으면 충분히 설명해 오향을 풀도록 한다.
- 잠버릇, 식사습관,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방법 등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행동은 사전에 같은 방이나 공간을 사용하는 동료, 선후배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료나 선후배는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평소 알아두어야 한다.
- 어떤 경우라도 모른척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

3 선수 폭력 대처방법



- 폭행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지도자, 지도위원이나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1599-6119)에 알리도록 한다.
- 폭행 당한 사실을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홈페이지(sports-in.kosad.or.kr)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상담(1599-6119)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폭행 피해 시 본인에게 필요한 조치(병원치료 및 가해선수 분리 등)를 지도자나 지도위원 등에게 요구해야 한다.
- 폭행 당할 때의 상황(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방법 등)을 기억했다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 둔다. 사진, 녹취, 영상기록 등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 장애로 인해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경우는 지도자, 부모,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 폭행을 당한 후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 다른 선수를 폭행했을 경우, 즉시 지도자에게 스스로 신고한다.
- 다른 선수를 폭행했을 경우,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 폭력장면을 목격하거나 폭력이 발생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도 즉시 지도자, 지도위원 및 수사기관,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등에 알리도록 한다.
- 폭행이 있을 경우 주변의 선배나 동료는 즉시 폭행이 중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맞은 선수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뼈가 부러졌거나 출혈이 심할 경우, 선불리 일으켜 세우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지 말고 119나 근처의 전문병원 연락해야 한다.

II

선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1 선수 성폭력이란?

선수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선수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선수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선수 성폭력은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과 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추행

일반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성희롱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



2. 상황별 선수 성폭력 예방법

● 경기장 및 훈련장

- 선수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에게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옷을 벗긴 상태로 훈련 또는 얼차려를 가하는 등 다른 선수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훈련 중 선수 간에 마사지 등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허락 받도록 한다.
 - ▶ 일방적인 신체접촉이나 지시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수는 훈련 시 장난삼아 다른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접촉 해서는 안 된다.
 - ▶ 본인은 장난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선수나 지도자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에게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선수는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훈련 중에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합숙 등 일상생활

- 선수는 지도자와 협의하여 만든 생활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 선수는 동료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동료에게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 예를 들어, 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 이에 해당한다.
- 선수는 다른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등)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선수는 음란물(사진, 동영상, 서적 등)을 가지고 있거나 동료선수와 공유 및 배포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벗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동료 및 선후배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선수는 자신의 몸이 소중한 만큼 동료선수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선수는 평상시에 자신의 좋고 나쁨의 감정 및 생각을 분명히 표현한다.
- 선수는 운동시간 외에 지도자와 불필요한 1대 1 사적인 만남을 가능한 갖지 않는다.
- 선수는 운동부 내에 성폭력 피해 선수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의심 나거나 피해가 있는 선수를 발견하면 보호자, 지도자, 지도위원 및 '장애인 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상담사 등 믿을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알린다.
- 선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3 선수 성폭력 대처방법



- 선수는 지도자(동료선수)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때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 ▶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행위임을 알리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선수는 가능한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도록 한다.
 - ▶ 피해선수가 더 큰 위험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 선수는 피해사실을 숨김없이(보호자, 지도자, 지도위원, 수사기관, '장애인 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상담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린다.
- 피해 선수는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 ▶ 강간 및 강제추행일 경우 몸을 씻지 않고 피해당시 옷차림 그대로 상처 등도 치료하지 않은 채 병원에 가야 한다. 강간 피해의 경우 빨리(48시간 이내)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 선수는 피해사실을 기록한다.
 - ▶ 피해선수는 피해를 경험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장애로 인해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경우는 지도자, 부모, 장애인 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 다른 선수에게 성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 가해 선수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III 참고 자료



1 선수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1) 선수 폭력 발생 시

• 지도자나, 성인선수 간에 의한 폭력처리 절차



사건발생



사건발생 알림



치료 및 증거 확보



사건조사 및 처리



치유 및 회복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 소속기관 및 수사기관
- 의료기관 방문치료
- 당시 상황 기록, 진단서 등의 증거 확보
- 구타인 경우, 신고와 병행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 소속기관
-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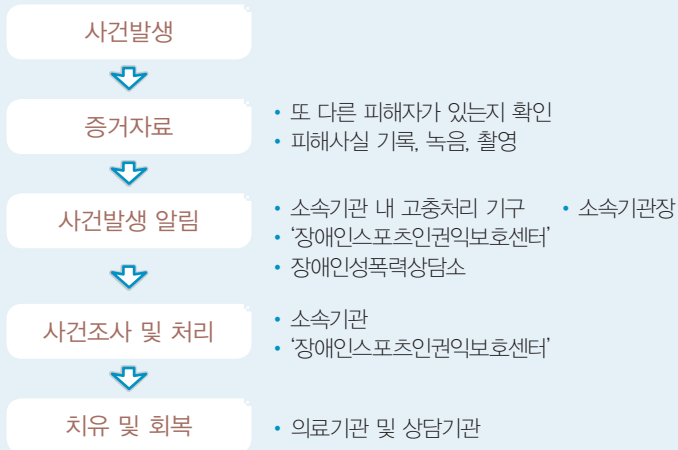


2) 선수 성폭력 발생 시

●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발생



● 성희롱 발생



2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소개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현황

설립목적

- 장애인 선수의 권익보호 및 폭력(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법률자문, 관련 정보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연 혁

- 2013. 5. 20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개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 2013. 7. 1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홈페이지 오픈
(sports-in.kosad.or.kr)

운영인력

- 전문상담사 배치(2인)

● 이용대상 및 방법

이용대상

- 선수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단체
- 선수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단체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가이드نس,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단체
- ※ 신고/상담 비밀 절대 보장

이용방법

- sports-in.kosad.or.kr(대한장애인체육회스포츠인권익센터) 접속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상담실 전화연락 : 1599-6119
-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상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소재
2014년 송파구 소재 별도건물로 이전 예정
- ※ 신고/상담자 비밀 절대 보장



3 관련 법규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9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대상 성범죄자 법적인 처벌

| 법률적용 | 조항 | 구성요건 | 법정형 | 비고 |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 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장애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3년 이상 | 비친 고죄 |
| | | 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청소년 추행/ 장애아동, 청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10년 이하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 |
| | | 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 | |

| 적용 법률 | 조항 | 구성요건 | 법정형 | 비고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 1항 장애가 있는 사람, 강간 | 무기/7년 이상 | 공소 시효 적용 배제 |
| | | 2항 장애가 있는 사람, 유사강간 | 5년 이상 | |
| | | 3항 장애가 있는 사람, 강제추행 | 3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4항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사람, 간음하거나 추행 | 1-3항 동일 | 비친 고죄 |
| | | 5항 위계, 위력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 5년 이상 | |
| | | 6항 위계, 위력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 추행 |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 | 7항 장애인시설 종사자 보호, 감독 대상 장애인 | 1-6항 정한 형의 2분의 1가중 |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전 화 상 담 1599-6119

인터넷상담 sports-in.kosad.or.kr



장애인선수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1층(방이동)

상담전화 1599-6119

FAX 070-7469-6119

온라인상담 sports-in.kosad.or.kr